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三日(火) 本紙夕刊二十二面

淺間丸拉致事件에 帝國政府强硬抗議

理由說明과 獨人引渡權留保等

【東京電話同盟】外務省은 淺間丸事件에關한 關係官會議의 結論에 基하여 對英重大抗議를 發하기로되어 二十二日午後十時五十分 크레기英大使를 外務省으로 招致하고 省內大臣室에서 谷次官이 有田外相을代理하여 面談前項마가치 帝國政府의 見解及抗議를하엿다 이에對하여

크레기大使는 英國政府의 今番處置는 國際公法에 基한 正當한行爲로 從來어떠한 第三國으로 부터 異議를 바든일이없다 라고 馬耳東風的態度로 나왓스므로 谷次官은 問題의 重要性에對하여 大使의 深甚한 注意를 喚起하는同時에 英國側의 今番强力處置의 根據에對하여 深刻한質問을하엿던바 同大使로서도 拉致獨逸人은 全部軍籍에잇는者라는 立證은 못한모양으로 我主張을 傾聽하엿다 最後로 日本政府의 見解及抗議는 卽時本國政府에 傳達할터인데 本國政府는 이에對한 深甚한 考慮를하여 熟議한後 回答을 發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 答하고 同十一時十分 會見四十五分 辭去하엿다

【東京電話同盟】淺間丸事件에關한 關係官會議는 二十二日午後 四時 午前會議에 繼續하여 開會하엿는데 西歐亞局長 山田同第二課長 松平條約局第二課長外에 海軍側으로부터는 柴中佐가 參加하고 淺間船長의 報告를 基礎로 此際帝國政府로서 取하여야할對策에 對하여 協議를한結果

一、帝國近海에서 英國軍艦이帝國船舶에 對하여 强力處置를 取한것은 重大한非友誼的 行爲라고 看做하지안흘수업는것

二、따라서 帝國政府로서는英國海軍의 今番處置를 容認치안코 充分히 根據잇는說明을 要求

三、抑留獨逸人의 引渡要求權을 留保할것

四、今後이가튼 非友誼的 行爲를 反復하지안토록 要求할것

等 四點에歸着하엿다 問題의重要性에비추어 午後六時半 阿部海軍軍務局長, 河村陸軍軍務課長의 參加를求하여 다시慎重協議한結果 同九時半에이르러 對英抗議의 正文을成案케되엇스므로 卽時在京크레기英國大使를外務省에 招致하여 帝國의重大決意를 傳達하고 英國의深甚한考慮를要求하기로되엇다

非友誼的行動이다

外務省情報部經緯發表

【東京電話同盟】外務省에서는二十三日午前零時淺間丸事件에關한 對英抗議에 對하여 다음가치發表하엿다 外務省情報部發表

昭和十五年一月二十一日午後零時五十四分北緯三十四度三十四分 東經百四十度三十一分의 地點에 停止하여 我淺間丸臨檢事件에 對하여 谷次官은 二十二日午後十一時五十分크레기在京英大使를 外務省으로 招致하여 다음가치 本件에 關한帝國政府의 見解及抗議를 하엿다

一、一月二十一日午後零時五十分 千葉縣野島近海三十五浬의 地點에서 一英國軍艦은 [illegible]로부터 橫濱에 歸航하는途中이던 帝國船舶淺間丸에 對하여 停船을 命하엿스므로 右帝國船舶은 零時五十四分北緯三十四度三十四分 東經百四十度三十一分의 地點에 停止하엿던바 右英國軍艦은 士官及水兵數名을 淺間丸에 派送시켜 國際法上의 權利라고 稱하고 仔細한 理由의 說明도 업시 또 同軍艦의 艦名조차 明示치도안코 乘艦獨逸人二十一名의引渡를 要求하엿다 淺間丸船長은 右要求를拒絶하엿스나 英艦의强力에依하여 前記獨逸人船客의抑留措置를 防止하지못하엿다

二、從來帝國은 一般으로承認된 바에依하여 公海에서 交戰國의 一方이 引渡를 要求할수잇는 中立國船舶에잇는 交戰國他方의國民은 現在軍隊에編入되어잇는者에限한다는 原則을지켜 왓슴은 이미英國側도 充分히 알고잇는바이다 右帝國의 態度를 充分히알고잇슴에도 不拘하고 帝國의近海에서 英國軍艦이 帝國船舶에對하여 前項과 가튼 强力處置를 取한것은 英國側의帝國에對한 重大한非友誼的行爲라고 看做하지안흘수 업스므로 帝國政府로서는 本件을極히重要視하는바이다

三、帝國政府로서는 今番英國海軍이 取한處置는 이를容認할수 업는바로 이에關하여 至急英國政府의充分且根據잇는 說明을 要求하는바이다 帝國政府는 그抑留된 獨逸人을 帝國政府에게 引渡할것을 要求하는權利를미리明白하게 留保하는바이다

四、今次英國側處置가 벌써 帝國輿論에 甚大한 衝擊을주고잇는 事實에비추어 이가튼 行爲가今後라도 反復되는일이잇다면 帝國國民의對英感情은더욱 惡化할것은 必至의일로 帝國政府는이에 日英國交의 大局的見地에서 英國側의深甚한 考慮를 要請하는바이다

皇后陛下靡寧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께옵서는 前夜부터 輕微하옵신 御感冒 氣味가 계옵시어 二十三日 宮中御講書始御儀에 出御를 御中止하옵섯는데 그다지 念慮하옵실程度는 아니옵시라고 拜承된다

青島會談臨席次青島에到着한王克敏委員長

注目되는英態度

【倫敦二十二日長谷川同盟特派員發】英軍艦의 淺間丸獨逸人乘客二十一名拉致事件에關하여 倫敦大使館에서는아직 本省으로부터의 訓電을받지안햇스나 이問題에關하여는 일직세계各地에 分散되엇던 獨逸人이日本船을 利用하여 本國에歸還하려는情勢를 察知한英國側이 計畫的으로 이를 搜査하려하던터이다 卽英海軍省은 過般我近藤海軍武官에對하여 『中立國船舶이 軍務에 服할수잇는 一切의獨逸人男子及 技術家를 乘船시킨境遇에는 英海軍은이를抑留할수잇는權利를保留한다』고 公式으로 通牒해왓스므로 近藤武官은 이에對하여 『日本海軍으로서는一九○九年의 倫敦宣言第四十七條規定은 軍隊에編入된 人員만을意味하는것이라고 解釋된다 따라서 貿易에從事하고잇는 獨逸人에對하여는 英海軍의 行動은 容認할수업다』고回答하엿다 그런데 英國側은 끗까지倫敦宣言을 要請하는바이다

伊太利의各紙는 汪精衛氏를絶讚

【羅馬二十二日發同盟】챠노外相이十四日附로 汪精衛氏에게보낸 激勵電은 世界外交界에 大衝動을 주엇는바 이에關하여 伊太利各紙는 二十二日論說을揭載하여 汪精衛氏의 人格을 稱揚하엿는데 主要論調는 如左하다

◆트리뷰나紙 챠노外相이新支那建設의 指導者인 汪精衛氏에게 멧세이지를보내어 激勵하엿는데 이는 同氏의 人格及和平運動進捗에 비추어 日伊關係만이아니라現下世界情勢上 極히 重要意義를가지는것이다

◆메사제로紙 汪精衛氏는 從來氏의 卓越한 人格과 識見에依하여 支那民衆間에 人氣를모으고잇섯는데 氏의 新支那中央政權 建設工作이 順調로進捗함에따라 더욱 그人氣는노파젓다 汪精衛氏야말로 國內의健全分子를新支那建設을爲하여 供給하고平和와秩序의 獲得에向하여 支那를指導하고또는 統制하여 强力한日本과 協力시킬수잇는第一人者이다

汪精衛氏等 青島에到着

【青島二十二日發同盟】青島會談에 出席의 純正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主席汪精衛氏를 비롯하여 秘書長代理褚民誼, 中央常務委員周佛海, 同組織部長梅思平, 宣傳部長代理林柏生諸氏와 維新政府行政院長梁鴻志, 立法院長溫宗堯, 內政部長陳群, 綏靖部長任援道諸氏와함께 二十二日午前四時入港의 大連汽船 華天丸으로 青島에到着하여 곳汪精衛氏一行은 迎賓館에 梁鴻志氏一行은 그란드호텔에 宿舍에드럿다

敵七十師將校九名 一擧我軍에게歸順

【太原廿三日發同盟】第二戰區司令閻錫山의 警備軍隊七十師에屬하는 卜振業少佐外少佐一、大尉三、中尉一、少尉三計九名將校가 下士官兵三名을 데리고 二十一日 臨汾에잇는 我部隊에歸順을要請하엿는데 彼等은 모두 抗戰의 前途에失望을늣끼고 和平氣運에 刺戟되어 日華和平促進에邁進하려고 抗日의迷夢을 覺醒한것으로 注目을끌고잇다

伊船百名行衛不明

【羅馬二十一日發同盟】二十一日 佛國[illegible]軍港近海에서 火災를이르킨 伊太利汽船 오라치오號(一一、六六九噸)의乘客及乘組員의運命에關하여 伊太利政府는 二十二日 다음가치 發表하엿다 오라치오號에는 乘客四百十二名 乘組員二百三十一名, 合計六百四十三名이 搭乘하고잇섯는데그中伊太利汽船코르미아카바노號(二三、二五五噸)에 百十八名, 코르로號(一、七六○噸)에 百七十三名, 其他佛蘭西汽船에 四十八名 合計五百三十九名이 救助되엇다 六十四名의 乘組員을 合하여 殘餘의搭乘者 百四名은 全部行衛不明이다 伊太利飛行機數機가出動하여 目下搜査中인데 오라치오號의 火災는 現在까지 아직 鎭火되지아니하고 同船은 火焰에싸여漂流中이다

蒙古와中央政府關係 周李兩氏意見一致

【青島二十三日發同盟】純正國民黨中央執行委員長汪精衛氏代表周佛海氏와 蒙古聯合自治政府主席德王代表李守信氏와의 會談은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青島迎賓館에서 行하여 約一時間만에終了하엿다 右會談은 近近樹立될新中央政府와 蒙古聯合自治政府와의 原則的關係를 協議한것인데 兩者間意見이 圓滿히 一致되엇다고 보인다

埃及公使에勳章贈與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서는 近近歸國하는 埃及公使아부 올프·와하브·다드베이氏에 對하여 日埃의 交誼親善에 盡瘁한것을 賞하사 二十二日左와 如히 勳章贈與의 御沙汰가계옵섯다
在本邦埃及國特命全權公使 아부올프·와하브·다드베이 勳一等瑞寶章

小林教學局長官辭任

【東京電話同盟】教學局長官 小林光政氏는 일직부터 辭表提出中이던바 松浦文相은 그意志를 翻하엿스나 辭意强固한것이 明瞭하게되엇스므로 結局 이것을 受理하여 文部省異動을 하기로되어早急히 銓衡에 着手하기로되엇다

外務辭令

【東京電話同盟】公使館一等書記官 兼田不二夫 任總領事命산파오在勤

日本品特別課稅 賦課할意思업다

모겐도米財務長官言明

【華盛頓二十一日發同盟】日米通商條約失效後의 日米關係에關하여 여러가지說이 만흔데 모겐도財務長官은 二十一日新聞記者團과의定例會見에서 條約失效後의 日米兩國間의通商關係는 一月二十六日以降도 何等變更될이업다고 如左히 辯明하엿다

今日까지의情勢로는 一月二十六日의 通商條約失效後도 日米兩國關係에 何等從來와變함이업슬것이다 米國은日本商品에對하여 何等特定된報復乃至相殺關稅를賦課할意思는업다

郵便物干涉問題로 米、英에抗議

【華盛頓二十二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二十二日午後 러시안駐米英大使를 招致하여 重要會談을 하엿는데 消息通側에서는 米國船其他中立國船舶 積載의 郵便物에 對한英國 干涉問題에關하여 거듭抗議를提出한것으로보고잇다

本社副社長 李勳求氏選任

二十三日 午後四時 本社臨時取締役會議를 本社貴賓室에서開催하고 取締役主筆 李勳求氏를副社長으로 選任하엿다

八面鋒

獨蘇新協定說이 떠들석、小國들 드들이선듯。

◇ 獨逸人船客을 淺間丸에서拉致、米國배를란 英人생각도해야지。

◇ 日米無條約狀態는 기어코 닥칠판, 政變드살에 外交休業이 답답코나。

◇ 石炭需給策이 閣議에서 問題, 閣議室 煖爐불도 需給表準을 삼으련다。

◇ 카ー大使 蔣과熟議、新政權先鋒에 몰도럿다。

◇ 羅津쀓開設이 또問題、大器晩成으로 몰라도 하렴어나니까。

廣告

關西地方配電案에 業者側快然承認

明二十四日부터制限斷行

【大阪電話同盟】關西地方電力飢饉을 打開하고자 遞信省에서는最後의 斷策으로서 『小松大阪遞信局長』에게 制限令을 一任하엿스므로 大阪遞信局에서는 二十二日 午後五時부터 同局會議室에 配電業者를모아 同日의軍官民代表會議에서 決定된 關西配電所管內電力 二、五○○萬키로時中通信瓦斯水道等을 除한一千七百萬키로時에 對하여三割(五百十一萬키로時)을 制限할基本數字에依하여(括弧內는現在制限率)

一、軍工場 一割七分(一割)
一、電車 二割五分(据置)
一、夜間電燈 三割(据置)
一、大離需要電力(專用線)三割五分(二割)
一、小離電力 三割三分(二割五分)

案을提示하여 勵行을求하엿는데 이에對하여 各配電業者가 電力飢饉을 잘認識하고 이를承認하여 오는二十四日부터 이에基한制限을 勵行키로決定하엿다 이에依하여 一日九千噸의 火力用石炭을가지고 關西二府十三縣의 電力需要를 節約할수잇다 大量電力이라 하여도 三割五分制限하고 그 以上의 制限에는 平和産業方面에는 重하게하는 關係上 最高四割五分制限을 밧는다는가 過半數를 占하게되어 그制限規定方法에 關하여는 五日에 一日休日制로할지 大體減電을 斷行할지는 配電業者에 一任하여 二十三日부터 從來와가치三日에 한번夜間停電을 하여도 效果가 업스므로 三日에 한번二十四時間制限을 斷行하라는 案과 三分을捻出하라는 案이잇서 決定을 보지못하엿스므로 二十三日 午前中大阪遞信局에 管下府縣諸代表를招致하고 再次協議한後實行方法을 決定하기로되엇다 그리고 이制限은 二十四日부터三十一日까지로 限定되엇스나 一月中의 石炭配定이 아직確立되지못하엿스므로 情勢如何에따라서는 다시 그대로 二月中까지 延期하게될지도알수업다

006359

石炭需給對策으로 補償炭制實施

廿三日閣議서意見一致

【東京電話同盟】新內閣의 正式閣議第二日인 二十三日은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하고 米內首相以下全閣僚出席하여 石炭需給對策의 最後決定을할터인데 二十二日의閣議에서 電力用石炭의 應急的供給을 確保하기爲하여서는 山元貯炭, 軍官民需要者의 貯炭, 輸送停滯의埠頭滯貨를 蒐集하여 焦眉의急을 救하는二點에 集注시키지안흐면안될것이라 하고 이것에 對하여 政府가責任을지고 補償을하여야할補償炭은 非軍內地에서만 適用할것이 아니라 日滿支三國을通한 綜合計畫에 依하여 이를 調整하여야할것이며 이點을石炭恒久對策의 一重要項目으로 檢討하여야한다고 大綱意見의 一致를보고 散會하엿스므로 그補償炭問題를 中心議題로하여 具體的決定을하게될터이다 卽政府는 지난二十日 三井、三菱兩社에 對하여 山元貯炭의增送을懇請하엿는데 二十三日에는 松本石炭聯合會長, 島田北海道炭礦汽船社長에對하여 同樣의 要請을할터이다 兩社가 萬全의措置를講究하고 民間側의 犧牲的協力과 相俟하여 電力應急對策의 完成을期하고잇는데 이는 新內閣施政의具體的第一着手인만큼 政府도 重大決意를보여 그圓滿한速成에全力을傾倒하고잇다

抗議文手交經過

【東京電話同盟】淺間丸事件으로 緊張을보인 外務省에서는 二十二日 午前의對策協議에 繼續하여 午後에도四時부터 會議를續行하고 英國에對한 帝國의抗議內容에對하여 여러가지案을 考究하엿는데 午後七時부터는 陸軍省으로부터 河村軍務課長이外務省에나타나 會議에 參加한外에 七時半에는 海軍省의阿部軍務課長도 來參하엿다 爲先 그때까지에 어든 案을보고 陸海軍代表는 退席하엿는데 八時부터 三次會合을 續行하고 다시 協議하여 抗議案을 考究하엿다 一方 午後二時頃에는 東方會의 [illegible] 이어 一九一五年十一月[illegible] [illegible] 日本政府의 [illegible]

退官奉告

【宇治山田電話同盟】前首相阿部信行大將은 遠藤前書記官長 唐澤前法制局長官等을 隨伴하고二十三日午前九時九分着의山田驛着으로 外宮에 退官奉告參拜를 하고 [illegible] 神宮司廳에 [illegible] 長으로 向하엿다

阿部前首相等

首、外相協議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三日午前九時半 臨時閣議에앞서 首相官邸에서 米內首相과會見하고 英艦의 淺間丸不法臨檢事件에關한 外務省의調査內容及 二十二日夜크레기英大使를招致하여 對英抗議를하엿든顚末, 經過等을 仔細報告한後 今後 帝國政府가 取할 措置에對하여 重要協議를 하고 閣議에臨席하엿다

靜岡復興委員會設定

貴衆兩院糾合

【東京電話同盟】靜岡市大火의善後策에關하여 二十二日午前一時半衆議院의 靜岡縣選出各派代議士全員은 院內議長應接室에 會合協議한 結果 此際에 貴族院의靜岡縣關係者도 網羅하여 復興委員會를 設置하기로 決定은 二十四日午前十時議長官舍에 第二回會合을열고 곳救濟實行具體化를 꾀하기로하고 散會하엿다

[illegible]王氏逝去

【예텐二十三日發同盟】[illegible]王氏는 昨二十二日예텐市自邸에서 死去하엿다 享年은五十九인데 同氏는 [illegible] 山、工業、[illegible] 業界에 [illegible] 하고잇섯다

參茸强壯水

高尚한芳香!
嶄新한味覺!
神秘한靈効!

參茸製劑의新機軸開拓!

人參과鹿茸이 補藥界의 雙璧으로 널리 世界的으로 珍重되고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最近城大杉原博士의 研究에依하면 朝鮮人參속에는 最近醫藥界에『ビタミン』以上의 寵兒가되어잇는『ステレン』配糖體及脂肪酸과 其他腦髓에 良好한 刺戟을주는 特殊한 芳香을 가진 揮發性物質이 含有되어잇다고하며 鹿茸이 補血造骨에 不可缺한燐과 칼슘이 多量으로 含有되어잇다는것도 벌서吾人의常識 이올시다。 그러나이러한 靈藥을 攝取하는 方法에 잇서서는 아즉까지 一步의 進步가업시 原始의域을 버서나지못하야 近代人의味覺에 맛지아니한것이 一大遺憾이엿든바 弊社에서 드되어 그欠陷을克服하고 味覺과 靈効를 兼全한『參茸强壯水』의製劑에 成功하야 從來의 參茸製劑의追從을 不許하는 新機軸을開拓하엿슴니다。

心身의健康를아울러保障!

몸이 노곤하야 일하기실코、일하여도곳疲勞와 倦怠症을 늣기는분 萬事에 興味가안나고 모든것을 悲觀하기쉬운분、아모리맛잇는 飮食을보아도 食慾이안나는분 飮食을 먹어도 消化가안되어 속이 늘께름직한분 아무리잘난 美人을보아도 興味가업는분 氣候가 조곰 變하여도 身體의故障이 잘생기는분 病後에 健康의恢復이 더된분、神經이弱하야 하잘은 일에늘氣分이 不快하여지는분、스포ー츠나 運動競技其他勞力消耗가甚한 激務에 從事하는분은 勿論、恒常心身의 健全을 心願하는분에게 自信을 가치고 本劑의愛用을 勸합니다 (全國藥店, 食料品店에서販賣)

本劑五○○瓦入壹瓶이면『參茸茶』五○杯以上이납니다。 그럼으로 價格에 잇서서도珈琲나紅茶보다 低廉합니다

【定價】
五○○瓦 五圓
二五○瓦 三圓

京城府禮智町一七九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京城府禮智町一八九
發賣元 天一藥房
代表電話 光三五○番
振替口座京城一九八四三番

內鮮共學의具體化와 技術者養成에置重

改正教育令實施以來의劃期的인 今春中等教育擴充의特點

해를거듭할수록 번영되어가는 향학열이 비저내는 심각한입학난의 완화가기대되는 소화십이년 초등교육확충계획과 병행하여 육개년계획으로 시작한 총독부의 중등교육확충계획 제사년째인 십오년도의 확충내용은 제일선에 보도한바와 가치 신설학교가 십육개교에 삼십일학급, 기설학교의 학급증가가 이십개교에 삼십구학급으로 합계삼십육교에 칠십학급에 달하는데 이로써 공립중등학교총수는 일백육십구교에 일천학급을 돌파하게되엇스며 수용인원도 삼천명을 증가하여 오만명에달하게되엇다 그러나 확충계획에의한 순증가는 사십삼교에 삼백육십구학급으로서 소화십칠년까지 칠백칠학급 증가목표는 절반남지하게 달성하엿을뿐이고 남어지 이년동안에 계획을 완전히 수행하는데는 일층 노력하지안흐면 안될사정에 잇을뿐아니라 매년 소학졸업생으로 중학교 수험자수가 심만명을 돌파하는 사실과 아울러 생각하면 중등교육을보편화하는데는 다시금 현재의 배가확충계획(倍加擴充計劃)의 필요를느끼고잇다 그리고 금번학교증설에서 특히주목을끄으는 점은 생산력확충에 업서서는 안될 기술자양성에 중점을 두어 공업학교와 직업학교의신설이 네학교 학급증가가일곱학교 합계십일학교 삼십팔학급으로 총학급수의거의 절반을 차지하는사실이다 이것은 총독부교육방침의 새로운 방향을가르키는것으로특히 주목되는바이다 그런데이번에 새로설립되는학교는모두 십삼년부터 실시된개정교육령에 의하여 내지인과조선인의 구별이업시 가치수용하여 내선공학(內鮮共學)으로되는것이다 내선공학은 그동안전문학교 이상학교에서만 실시하엿다 중학교와 고등녀학교에서도 십삼년도부터 개정교육령에 의하여 실시되어 왓섯스나 국부적이엇든것이 이번 신설학교에의하여 일층구체화한것이다

原則으로半半式

但,地方의特殊事情은考慮한다 實施될共學制의內容

중등교육확충계획에 의하여신설되는학교는 모두내지인자녀와 조선인자녀가 구별업시 공학을하게되는데 따라수용인원은 어떠케되겟느냐 하는점에 대하여 목포박목(木浦柏木)사무관은 다음과 가치말한다

이왕부터잇서온 학교에대해서는 그학교의연혁에따라서 조선인자녀와의 수용사정이 달러질것이나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내선공학을 하게되는데 생도모집은원측적으로 내지인자녀와 선인자녀를 각히 반반씩으로할 것이다 즉 이번 경성에 중학교가 한곳, 고등녀학교가한곳 두학교가 신설되는데 이런경우각히 반반씩 수용케될것이다 그러나 사정에따라서는 반듯이꼭 반반씩수용치 안케될것도 잇슬것이다 말하자면 지방정황에따라 수용모자사정여하라던가 또는학교를 설립케된사정여하에 따라서는 수용인원에 대해서도 얼마큼고려하게될것이다

前室所生謀殺한 繼母에五年

전처의딸을 불에 태어죽이려다가 뜻을 못이루자 칼로난타한 충치—용인군수지면동천리(龍仁郡水枝面東川里)오백사십이번지 문용서(文容瑞)의안해 정윤옥(鄭尹玉)(三七)에대한 살인미수사건의 이심언도공판은 이십삼일 경성복심법원에서열려 궁정(宮井)검사관여아래 시본(矢本)재판장으로부터 검사의 구형칠년보다 경하게 징역오년의 언도가잇섯다

電話開通 京城〈大和 珍富〉 江陵〈仁川 永登浦〉

경성과 강원도 진부(珍富)사히와 강릉(江陵)과 인천(仁川)사히와 영등포(永登浦)사이에 전화통화를 개시하기로되어 일월이십오일부터사무를 보기로하엿다. 통화료와요금은 아래와갓다

▲京城—大和通話料(一通話)七十錢 呼出料四十錢
▲京城—珍富 通話料 八十錢 呼出料四十錢
▲江陵—仁川 通話料一圓 呼出料四十錢
▲江陵—永登浦通話料九十錢 呼出料四十錢

新學期小學教員 三千五百名採用 移入教員은六百名

총독부 경례국장회의는이십삼일오전아홉시반부터 제삼회의실에서 열리엇는데 내무국장대리(柳生地方課長)으로부터 지난이십일 실시된조선직업소개령에대하여 설명이잇섯고 식산국장으로부터 심사분의 경어리사과장 신원(信原)으로부터 경어리어학교에 대해서 대정(大井)으로부터 시정삼십년기념사업에대해서 기획부장대리(井坂第三課長)으로부터 석탄세멘트등에관한물동계획의 절충경과에대해서각각 보고가잇섯고 학무국장대리(八木學務課長)로부터

一、명년도에학급이증가하기때문에 신규소학교원의 소용수는 삼천오백명의 다수에달하는데 그중 이천육백명은 사범학교 졸업생으로써 충당하고 남어지천백명은 내지로부터 육백명을 공모하고 삼백명을 검정시험으로 등용하며 이백명은개인시험을바더서채용할터이다

一、명년도예산에 중등학교학급을 증가하는 예산이계상되엇스므로 상당히활동할모양이다

라는것을발하고 최후로 대야정무총감으로부터 오는이십오일 동경에 건너가므로 이곳에잇지안는동안의 사무에대하여 소감을 말하고 동열시반에 헤여젓다

蓄妾豪遊은 盜竊犯二名

숨진계집을 첩으로 두고 연일 유흥거리며 놀던 절도범—작년삼월 형무소를나온 전과이범의 부녀아현정(阿峴町)오백칠 ...

膨脹하는府教育費

第二部特別經濟豫算倍增、四百七十餘萬圓 廿九日部會에서原案通過無疑

신년도 경성부제이부특별경제 조선인교육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부내무과를 중심으로 수차에걸쳐 예산사정회의를 거듭한결과 총액사백칠십삼만여원으로 사정이되어 전년도에비해서 일약이백칠십만 사천여원의 증가인 거액의교육예산을 세우기에이르럿는데 이것을 서류기타에편한 만단준비도마치엇슴으로 일월이십구일 오후두시 경성부회의실에 경성부제이교육부회를열고예산안전부를 상정하여 협찬을엇기로되엇다 이제 이교육비만통과하면 예산은 정식으로 성립을보게될터인데 원안대로 통과될것은 대개의심업다 이제 세입 세출예산안은아래와갓다

(歲入)
▲一金百三十八萬六千二百六十五圓 經常部豫算額
▲一金三百三十四萬四千六百一圓 臨時部豫算額
合計金 四百七十二萬八百六十六圓

(歲出)
▲一金百二十二萬九百九十一圓 經常部豫算額
▲三百五十萬九千八百七十五圓 臨時部豫算額
合計金 四百七十二萬八百六十六圓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인 소화십사년도예산액 이백육십오만육천육백이원과 비교하면 거의 갑절에가까운 이백칠만사천이백육십사원의 경이적인증가이다

豫算內容概要 二百九十萬圓은起債

소화십사년도 경성부제이부특별경제예산(조선인교육예산)이 ...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일거에 이백칠만사천이백육십사원이나 늘게된것은 신설삼교(馬場、北阿峴、孔德)의신설비와 자재난 파경비문제로 지역에지연을 거듭해오던 부내각소학교의 증개축에 대하여서 신년도에는 만난을배제하고 전면적으로 손을대기로 방침을결정하고 여게대한 방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한것과 그리고땅값이 졸라올가기전에 현재운동장이협착해서 고생하고잇는 각소학교에 하로래도 빨리인접지를 매수하여 땅을 널피도록한것파 다음년도인 소화십오년도에 신설될 세소학교의 기지까지도 미리서두러서 지금 사두기로되어 여게대한 예산을 계상하엿다는것이 그 가장큰원인이다 바꾸어말하면 대규모의 교사신증개축과 교지(校地)확장에따르는소위신영비(新營費)가 비약적으로증가한때문이어서 신년도의 신영비는 총액삼백사십구만육천팔백사원으로 전년도의 일백사십만삼천이백칠십오원에비하여 일백칠십일만사천이백이십구원 즉 이할이상의 증가이다 이것이 신년도 총예산을 그처럼 여만원이나 엄거에 불게한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부당국에서는 여게대한 재원염출책으로 신년도 기채(起債)로 대략이백구십만원 한도내에서 기채를하여 예산중 모자라는분을 충당할방침이다

땅값시 작구만 올라갈기세이보이므로 학교기지와 운동장등은 하루라도 빨리서두러서 미리사둘필요가 잇슴으로 경성부에서는 신년도의 신설학교중공덕(孔德)소학교기지조로 이십일만이천육백원 북아현(北阿峴)소학조로 십만이천사백원을 계상하엿고 전년도에 살예정이던것이 이 땅값시올라서 못사고만 삼청(三淸)소학의 부족금으로 십 ... 파갓다

今日平壤에兩次大火

店舘七棟全半燒 一名燒死,原因調査中

【平壤支社電話】 이십삼일오후동안에 평양에는 두번이나큰불이 일어나 큰소동을일우엇섯다—오전열한시삼십오분쯤 부내대화정(大和町)삼정목 평정시계점(平井時計店)에서 불이나서 인접한 환광양복점(丸光洋服店)과 출광재봉점(出光裁縫店)을전소하고 목촌(木村)지소를 반소하고 진화시켯다 그런데 평정시계점의 점원 석야방송(石野芳松)의처 가즈코(二五)는방에잇다가 집주위로 갑자기 연기가퍼져 나갈줄을 미처 찾지못하고 그만타죽엇다 발화원인은 시계점에서쓰는 화로불이 당긴까닭이라고는하나 아직자세한것은 알수업고 손해도방금 조사중이다 이곳은 신시가의중심지로서 우편국과 조선은행 양지점등이잇서 일시는 대혼잡을 일우엇섯다

▲그리고 오전한시삼십분쯤에는 부내 대찰리(大察里)일백육십팔번지 서대문양복점과 그여페 부러잇는 잡화점두채가 전소되엇는데 불이난원인과 장소는 아직 조사중으로 어느집에서 어떠케 불이낫는지도알수업스며 손해만은 조사한결과 일만오천원가량이라한다

母性愛도얼엇나? 一日棄兒三件

요새가치 모질게치운 날씨에 모성애까지 얼어붓고 말엇는지 이십일일하루에 세건의 기아(棄兒)사건이생겻다

▲연지정(蓮池町)이백사번지이덕근(李德根)의집에 온집안사람이 모두잠들 이십일일오전한시쯤 대문간에서 우는갓난어린 아이의 우름소리에 나가보니 난지 스무날밧게되지안흔 사내아이가 버려잇섯다하며

▲가든날밤 열두시반쯤 공덕정(孔德町)사번지 고덕... 집대문안에 난지한달이나 될가말가하는 ... 버려잇섯다한다

▲이날오후 일곱시반쯤 ... 정(貞洞町)백팔십이번지 ... 집 ... 계안되어보이는 ... 어린것을 때마침 놋게 ... 러잇는것을 ... 다한다

流氷·連日集結

江華島封鎖態勢

仁川以外交通、全部杜絶危機

【江華支局電話】 강화도는해마다 유빙(流氷)으로 말미암아 육지와의교통이 두절되는데 금년에도역시 일월이십일부터 유빙이흘러오기시작하여 강화도에서머지안흔 교동도(喬桐島)서도(西島) 개풍군영정포(領井浦)등파는전연교통이 두절되엇고 또이대로 날씨가더계속하면 황해도 연백(延白)마도 두절될모양으로 도민은모두 적지안흔 근심가운데 싸혀잇다 그리고 경성방면으로부터오는 자동차도 약두시간이나 지연되엇스며 어쩌면인천외에다른 모든지방파는 전부 교통이 끈허질것으로보인다

一家의支柱일코 열食口連名提訴

不二鑛業걸어四千餘圓請求

충남부여군규암면외리(扶餘郡窺岩面外里)오백삼십오번지 강인영(姜仁永)의 가족열명은 부내황금정(黃金町)일정목칠번지 불이광업(不二鑛業)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사천이십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이십삼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제출하엿는데 소장을 보면 다음과 갓다

원고 강인영의아들 강춘수(姜春秀)는 안해와 사이에 팔남매가잇서 자기가 농사를지어 근근 살아오던중이데 작년에는한재로 농사는 헛수고가 되고살림이쪼들려 시월일일부터 근처에잇는 불이광업소유의 금지(金池)광산에서 하루팔십전씩밧고 수갱(竪坑)의 물푸는일을하여오던중 그달십오일 사다리우에서 일보던 김화선(金化善)이가 사다리가 꺽거지는통에 떠러지며 그아래서 일하던 강춘수를갈고가치 떠러저 뇌진탕을일으켜 이튼날 드디어 절명하고말엇다 이때문에 그를 늙가치 밋고 살아온 나이만흔 부친이며 안해와 소생 열명은 당장에 살길이 업서젓스니 이들의 생활비약간과 정신상으로 바든 충격에대한 위자료로써 사천여원을달라는것이다

平田百貨店 盜難

이십일밤 부내본정통(本町通)에잇는평전(平田)백화점에도적이드러 이층양복부에서 외투 ... 한 이십이일 ... 동서원이 인천까지좃차가서 두명을 모두 잡아왓는데 지금까지 들어난 피해액만이 삼천원이나된다

"少年""大盜團"

東署에서捕盡한고마열명의 犯行百六十回、三萬圓

동대문서 사법계형사대는 이십일새벽 신당정길까에잇는 토막촌을 습격하여 열명의소년절도단을 잡아다 방금 엄중히 취조한결과 그들의선령마 이십삼일 오전까지에 판명된 범죄는 아래와갓다 즉 김광옥(金光玉)(二〇)노사봉(盧四峯)(一七) 고영석(高永錫)(一七) 김창근(金昌根)(一五) 이성갑(李聖甲)(一五)외다섯명의소년절도단으로 이들은 작년오월부터 한패를꺼다니며 부내황금정(黃金町)삼정목에잇는 삼호(三好)양복점에 침입하여 ... 흠친것을 비롯하여 부내각처로 돌아다니며 ... 그피해액은 삼만원을 넘는다고한다

신사복동 명동시까지 밤마다 ... 처갓는데 이십이일 아침에 ... 본서에서는 ... 하엿는바 ... (質屋町)모여편에 ... 소년이라는것이 따랑 ...

高專、中等 氷上大會後記

高專과中等氷上界의 ... 高專、中等氷上스케-트는 지난二十一日에 ... 第三回 ... 中等은第八回 ...

... 同大會가 ... 이어서 ... 大會가 目的하는바에 ... 興亞大會에關하여 日滿華協議會開催 ...

水豐「댐」工事 解氷期前中央部杜塞

【平北支社電話】 압록강수력발전소(水豐)댐공사는 지난십일월부터 중앙공사를 시작하여 해빙기(解氷期)까지에는 중앙을전부다 ...

咸北業億에 電信電話取扱所

체신국에서는 함북성진군 학서면(鶴西面)에 ... 취급소를 새로설치하기로되어 이월일일부터 사무를개시한다 통화구역과 요금은 아래와갓다

通話區域	一通話料	呼出料
業億—臨溟間	二十錢	二十錢
同 城津間	三十錢	二十錢
同 吉州間	三十錢	二十五錢
同 西湖津間	四十錢	廿五錢
同 端川間	四十五錢	廿五錢
同 群仙間	五十錢	廿五錢

區間	一通話料	呼出料
利原間	五十錢	廿五錢
同 水下間	六十錢	三十錢
同 洪君間	六十錢	三十錢
同 細川灘泉間	十五錢	二十錢
同 大新里間	四十五錢	廿五錢
同 甲山間	六十錢	三十錢
同 永安間	四十五錢	廿五錢
同 朱乙間	六十錢	三十錢
同 朱乙溫泉間	六十錢	三十錢
同 鏡城間	六十錢	三十錢
同 羅南間	六十錢	三十錢
同 清津間	七十錢	四十錢
同 會寧間	八十錢	四十錢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實話三夜 ▲六時三〇分 趣味講演 ▲七時三〇分講演 ▲八時레코-드 ▲八時二五分野談 ▲八時五五分 西道歌謠 ▲九時一五分 浦吟과詠詩 ▲一〇時一〇分中等國語講座

白鐵筆

그동안 이저버린듯싶던 백교사건 이야기가 도거리에 ... 나온다 하는데 ...

바른證書·願屆는 이러케쓴다

아무리어려운證書·願書라도이한冊으로 아무라도 제손으로 쉽게쓸수잇다

廣 告

日常生活上에 時時로부디치는 의례類와 書式을 쉽게쓰도록 ... 東京市京橋區木挽町五丁目五ノ六 發賣元 ... 振替東京一六四三五一番

開業謹告

皇紀二千六百年 興亞新春을際하야 今般北鮮大都清津에左記와如히開業하얏사오니 여러분의倉庫와갓치 自由利用하야 주시기를伏望하나이다

一般醫藥 化粧品
各社新藥 化學用藥品
有名賣藥 工藝用藥品
衛生材料 釀造用藥品
醫料器械 農藝用藥品
卸

株式會社 清津新井藥房
清津府浦項洞(新岩前)
電話三一四三番
振替口座京城七一六七番
受信電略セイシンアライ
本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謹 告

明二十四日ハ弊社社長ノ葬儀ニ付午後ヨリ臨時休業仕リ候間何卒御諒承賜リ度 奉願上候
昭和十五年一月二十三日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丁子屋

精力強進剤 ジーニク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④五〇四〇番・振替京城二九七番

每月抽籤が樂しめる 福合債券 (六枚組)
證券擔保低利金融

醫學博士 三浦民雄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九

觀相大方家 ... 警察官(講義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慢性「尿의病」과 性病의苦惱를救하는 "家庭自療法의公開" ...

善한牧者 ...

七千圓 漢藥全集 ...

京城 朝報案內 ... 金剛寫場 京城優美館前 電光三三七八番

書圭浣齒科 京城鐘路三丁目

生徒募集 ... 痔疾 ... 給仕採用 ...

鑛業 日產鑛務所 京城府吉野町二丁目九九 電話本局②五四四五番

朝光女性少年發賣中

山口樂器店鐘路支店 京城鐘路

學藝

文·藝·月·評 魅力업는作品世界 (上)

尹圭涉

벌써 正月도 半이 지내다. 어느듯 새해의 氣分만도 이저지려하다. 連日의 酷寒에 寒威를 모르고 거리를 헤매며까지는 조화스나 德分에 귀를얼고 裂風을 쏘이고 다녀다는것은 確實히 나의 不幸이엿다. 그러나 本意아닌 今次 臥席으로 말미암아

(案頭) 에 積載된 新年號 諸誌의 創作欄을 모조리 읽을 機會를 갓게된것만은 그래도 多幸이엇다.

新年號創作欄에 掲載된 作品數를 헤여보니 新聞掲載分을除外하고서도 二十餘篇이나 된다. 거기에서 連載長篇 또는中斷物을 제처놋는다하더래도 十五六篇가까이된다.

그러나 이가지 數마흔 作品을 읽고난後의 나의感想이란 率直히 말하여 疲困과空虛를 느낀것뿐이엿다. 무슨 作品의感興이라던가 魅力에 끄을려 作品을 읽어가는것이아니라 一種의 義務感에서 한作品을 다읽고 다시 한作品을 繼續하여 結局은 創作全部를 다읽고나기까지 이러타는 무엇을 發見하지 못할제 마치 自己는 別般用務도업는데 故鄕서 갓올라온 親戚에 끄을려 病院에도 가게되고 新聞社에도 들리어 茶房으로 劇場으로 商店으로 돌아다니다 那終에는 남의집訪問에까지 同行하고서 집으로돌아올제 느꾸나 느껴지는 疲困과 空虛感—그러한것이 나의머리를 스처갓다.

따라서 이글은 법라 시골서 올나온 故鄕親戚에게 하루를奉仕하여 그의 要求를 다보게해주엇다는 一種의서글픈 自慰感을 가지고 고달븜을 자리에 누피는 그러한心情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아니다.

×

兪鎭午氏의 『봄』(人文評論)은 主題를 明確히 捕捉할수업는作品의 하나엿다. 勿論 이作品은 누구나 構想

(特異) 할수업는 傳染病患者를 收容하는 隔離病舍를 그려온 한 素材를 가지고 잇다. 뿐만아니라 病院안의 雰圍氣와 病院안에들어간 人間의 心理를 솜씨잇게 그려내엇다. 그럼에도不拘하고 나는 이作品속에 主題가 明確히 캣치되지안헛다. 勿論 이作者는 傳染病과 消毒藥 머리우에서 生命을 戲弄하는 死의威脅 이러한속에서도 看護婦에게는 愛情이 움지기고 잇는 시니컬한 人間生活을 그리려고 한것이 아니냐고 反問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하나의 뉴앙스에 지나지안헛다. 病院에 들어서면 누구나 느끼고 보는程度의 病院風景—그것뿐이엿다. 그리기에 이作品은 讀者의 感性的表象的인 經驗에 呼訴하는 形象性은 豊富하나 現實의 本質的인것을 認識시킬수잇는 槪括的 表現力은 薄弱하게된것이다.

安懷南氏의 『길』(鑛業朝鮮)亦是 主題의模糊한 作品이엿다. 『煩悶하는짠룩氏』와가치

(手法) 上의 재미를 붙인잇스나 作品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기리를 말하는 이作者로서는 넘우도 김빠진 作品이엿다. 목노술집 內外가 服傭사리를하다가 가튼일軍 [illegible] 가치 [illegible]하다가 그칼재비에게 안해를 빼앗기고自己는 다시 그칼재비자리에 안게된 [illegible]—그것은 讀者에게 [illegible] 讀者에게 알려줄 이야기꺼리는 못되는것이다.

李無影氏의 『딸과아들과』(人文評論)는 副題에 『어른들을위한 童話』라고 쓰여잇다. 그러나 나는이 作品을 읽고나서 그것이어린이들의 『童話』로 받처써저야할 것을 느꼈다. 맛딸 奧燕이는 어린 男動生을 두어기에 父母에게 그러케도 所重하게 귀염을 맛던것이 一朝에 [illegible]가 되엇다고 作覺하고서 애기에게는 미움을주고 父母에게는 不平을갓고잇다. 그는 드디어 피病을업어서까지 父母의

(愛撫) 를 바랏고 父母가 업스면 어린애기를 미워라고 때리기까지 햇다. 이것이 이作品의 梗槪이다.

누구나 이梗槪만으로도 能히 짐작하듯이 이作品은 넘우나 觀念的인 作品이다. 父母는 奧燕의 마음을 그가치 빗두러지게 만드럿슬까. 作者는 이러한 反省을 讀者에의 要求하엿슬지 모르나 讀者는 그것을 作覺하기前에 父母의 愛情이란 아무리 男女를 區分하는 家庭에잇서서도 子息의 反感을 사지안흘 만큼은 다쉬운것이며 또한 그愛情은 男女區分보다도 [illegible] 乳兒에가는것이며 또한 奧燕이도 그동생을 『애기』로써 貴엽게 구는 天倫이 미움보다압선다는것을 알고잇다. 아마도作家가 어느瞬間에 어든 『힌트』를 넘우나 誇張하는데서 이러한 結果가 生기지 안헛는가한다.

[illegible] 잇섯는데 그中에도 孫武의 二十五法은 [illegible] 流行하면 것이다 [illegible] 가튼이는 大將軍이 되엇스니 當時에 [illegible] 한時가 流行할지경이엿다. [illegible] 『外國各邦의 法을 [illegible] 모아서 通十一門 二百八十二 法을 [illegible]하엿섯다.

米國의反蘇熱

【紐育同盟通信】蘇聯의芬蘭侵入以來米國의對蘇反感은險惡化해갈뿐인데 方今米國에머물고잇는 共和制『로서아』時代의 元首相『케렌스키』와 [illegible]文豪『토―마쓰·만』및 芬蘭初

世界의 귀

代首相『오스카―·[illegible]』의 三氏는 얼마전에 紐育 [illegible] 『디―물로맛든·호텔』에서 開催된 米國社會民主黨聯盟主催의 大會에 臨해서 각각 壇上에서 蘇聯의 [illegible] 『만』은 『히틀러』政權의 [illegible]迫害의 犧牲이되어 祖國을 쫓겨나서 方今은 『하―바―드』大學에서 [illegible] 한몸에 모으고잇는데 그大會에서 蘇聯의芬蘭侵略을 非難하여 아래와가치말햇다. 『芬蘭의 『마네르하임』防線이야말로 西歐文明의 最後의 防壁이다』

讀史餘錄 朝鮮武士小史 (四)

安自山

(武藝) 武士는 隱秀한 戰鬪者의 資格을 가지기 위하여 實力을 養成함에 當然한 일이다. 自來로武士가 肄鍊하던 武道는 弓術 擊劍 柔術

피카소와觀覽者 ⑤

『피카소』의 初期作品中 하나인 『道化役者』아페서 明日을待機하는 젊은女畵學徒는熱心히 『노―트』를 하고잇다.

이달의詩 (下)

心靈의破產

金珖燮

이달 詩가운데서 가장산뜻한感覺의纖細를 나타내는詩가잇다면 李陸史의 『絕頂』을들수잇다. 『少年에게』라는詩에도 그런傾向이잇지만 『絕頂』은 그야말로 感覺의 한尖端을이루는 八行詩로 빈틈업시 째여젓다. 『하늘도 그만 지처 끗난高原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릅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업다 이러매 눈깜아 생각할밧게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개가보다』 正히 『絕頂』이 잘表現된詩라하엿다.

◇

이와좃달리 感覺에다가 知的要素를너허서 생각하며 쓴詩로 林學洙氏의 『밤』이잇다. 밤을 낫과 對照한詩로써 밤은 『印度諸侯의 倉庫보다도』 『喜望峰의 金剛石보다도』 『비너스의微笑보다도』 아름다운것이어서 그속에는 戀人의 臙脂도 잇다. 그러나 나즌 蒙古風, 季節風 요사스런 우슴이 잇다는것이다. 이러케 靜과動 美와 醜로 對照되는밤과 나즌 다음 節에는 밤에도 퓨―욱, 로―마의 露波, 地下室 祭壇도 興奮의 바다가 되어버리니 結局寂夜가 모두다 不休不眠의 거리가된다. 詩의 마음이 整頓되지 못한탓이 아닐까?

이詩人은 亦是 『예―츠』를 사모하는 詩想이 조케 는데 印度諸侯의 倉庫니 喜望峰의 金剛石이니 하는것이 들어맛지안는 好奇心갓다.

◇

다음 吳熙秉氏의 『新生의 노래』가 活氣잇는 題目을 떠고잇스나 읽어보면 어느 北方異域치운겨울 한적한村落에서 『내가 바라것은 오로지 다스한 사랑』이라하며 『내마음에는 보리이삭이·소사·낫노라』하는것으로 新生의노래가된모양이다. 節마다 될수잇는데로 고흔想을 집어너흐랴하엿스나 어떤지 感情의交流를 連絡시키는 素材가 散漫하여 作物 車線路가잇다가도 樹林의어둠이잇고, 품은한눈이나리다가도 눈보래가나고 생쥐가 숯고 高原도 나와서 詩의 敍述에 集中力이업서지고만 듯한 遜色이잇다

◇

다음 辛夕汀氏의 『꿈』은 꿩을사랑햇다가 사랑지안헛다가 할수업시 다시 사랑하는詩요 趙靈出氏의 『女』는 女子가 夜光珠가 되엇다가 다음節에서 果실이되는 比喩가어떨까하나 『넓기가 먹기쉬운 터진石榴』라한것은 이詩에잇서서 느끼고생각될수잇는 貧한知性의얼매엇다。

◇

尹崑崗氏의 『自畫像』은 이詩人으로서는 좀얼치한自畫像가른感이난다. 비탕에서 거울속을 드려다보고 그리는 코와이마―나종에 비웃는탑―『한낫 버려지처럼 살다가 한낫 버려지처럼 죽으라』는自嘲다.

◇

靑春의길에 나서서 山열매를 따먹으며 죽다듥지며 또 無數한罪惡을 無數한 과일처럼 향락하며 逆路에선 徐廷柱氏의詩 『逆路』는 꿋까지 불타는꿋 그늘에서 悅樂을求하는 痛熱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꿋꿋에서 强烈한 文字가 强烈한불꼿을 이루지못하고잇는흠이잇다。

◇

金達鎭氏의 『劍閣』―부처님아페 五體를 바치건말건 빈다고 아름다운것이 모두흘러가는 가운데서 근심스런 花瓣은 열로안개 눌에서 흔늘리인다는 이詩는 詩의形成으로보아 成熟되게 째여진感이난다.

◇

사랑을 別로뽑어서 그냥 그대로 노래한 詩로李燦氏의 『나의사랑아 네溫室의문을』열어달라하는 詩가잇스니 戀情을감출업시 愛情대로 살것이 長點이다

◇

끗으로 只今 朝鮮詩壇에서 靑年詩人으로 가장만흔 詩를 끄침업시 쓰는詩人柳致環氏의詩가 잇다 『鹽脫』 『安住의집』 『내너를내세우노니』가 모두 氏의魅力업는 風格을띤詩篇들이다 『내너를 내세우노니』에서는 崑崙山脈을찾구니에까지 脫走하여와서 즘생가치 彷徨하나不滅의 靈魂은언제어데서나버릴수업는것이엇고 『安住의집』은 어데잇는것인지는 몰라도 그의詩心을 따라가면거기에는 『한장푸는하늘아래외떨기 들꼿산 愁惡히피어잇는』 곳이다.

氏의詩의長點은 只今詩壇에서 좀처럼따르기어려울만큼 人生에對한 觀照生活에對한 感懷를 豊富히가진데 잇다. 그때문에 難點할도 避치못하니 『내너를 내세우노니』는 그런種類에 屬한다.

◇

主로 『文章』 『人文評論』 『朝光』 『詩學』을 中心으로 읽은詩들인데 아직도들랴면 만흐나 이름잇는詩人의것을 大部分들엇다. 그러타고 이以外의것을 輕視함은아니나 이만큼하는데만도 한回分이 두回分이되엇다. 이러케 만히 읽는가운데서 느낀것은 只今朝鮮詩壇에는 작은完成보다 큰未完成의작이 보이지안는다는것이다. 小小한 感性 꾸며대는 形象 言語의才幹보담― 이런것이 大部分인것갓다. 社會를 먹고사는 詩는잇슬수업슬까?

時代가詩를 自由스럽게못하기도하겟지만 넘우도 만타하더라도 우리는 좀더크고 넓고 기픈想을그속에뛰여들어 거기에 表現을주어야할것이다. 苦哭도 慣慨도 呪呪도 悲哀도 다넓은마음 마 기픈想속에서 享受되어야 거기서詩의그릇이 커지지안흘까。 (以上完稿)

× × ×

二等當選短篇小說 洪水 (十)

金萬善 作　洪祐伯 畵

「엄마, 물이 자꾸만 늘어」

「거참 큰일낫다」

「그럼 가칠복 할머네로 그전처럼 가나」

「이번두 그러케 될라나보다」

「그럼언제? 이따가?」

경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발을 유심히 내다본다.

「에그더니나! 뒤ㅅ물이 터젓네!」

뒤ㅅ집에서 놀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여 마르미트로부터 탁류는 소리도업시 앞미당으로 퍼진다. 경히의 집신이 밀려 나온다. 경히의 꼿나막신이 둥실 떠내려간다.

「엄마! 내 나막신 나막신 봐!」

경히는 마루우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나막신은 장독ㅅ대 아프로 가다 슬적 방향을 돌려 대문간으로 쓸려간다.

압강 뒤ㅅ강의 물이 합처진 탁류는 더욱 빠르게 부럭만 간다. 지영호네 무럽을 넘어스고 끌목안으로 기펴간다. 그제서야 괴란민들은 급하게 서둔다.

「어서들 나와!」

지영호는 배를 문간에 대이고 식구들을 재촉한다.

「여보! 이리좀 들어오슈!」

안해는 도리어 그를 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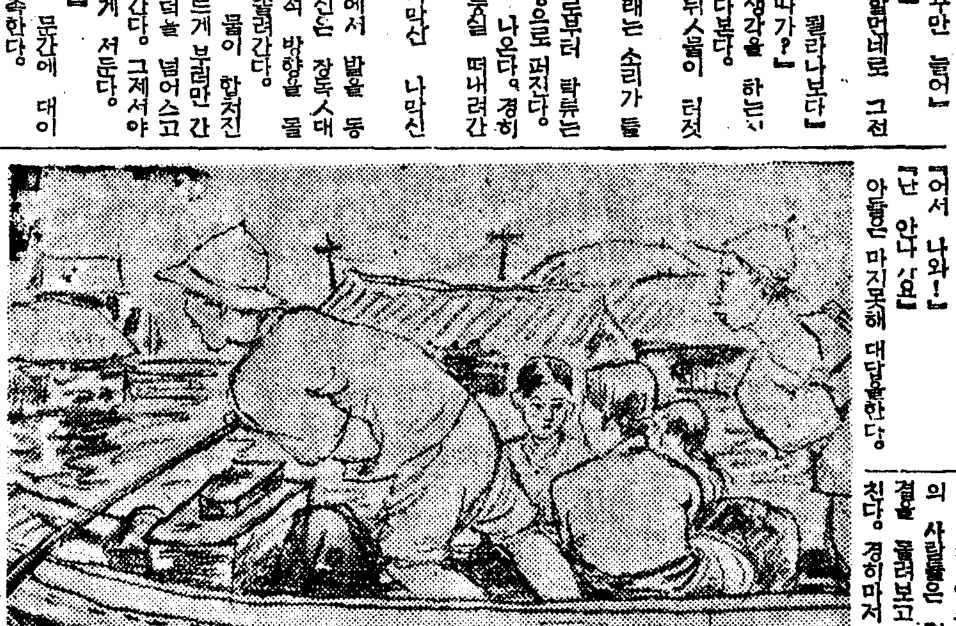
「왜 그러는거야. 어서들 나오라니깐」

쪼차들어온 지영호는 방안에 번드시 누어잇는 아들을 재촉한다. 그러나 아들은 들은척도 안는다.

「어서 나와!」

「난 안나가요」

아들은 마지못해 대답을한다.



「날들 기대려!」

밖게 베에는 뒷집 식구들이 차지를하고 기다린다. 그러나아들은 슬적 돌처 눕는다.

「이거 웨 이러나!」

별안간 장성이 드럽떰벼 점룡이를 일으켜 논다.

「죽구시픈가 죽구시퍼!」를 느

것봐!」

정룡이는 도수장으로 끄리는 소가치 거름도 무겁게 끄러나온다.

「닷덧이 사람두! 어쩌려구 그러는거야!」

뒤ㅅ집 젊은이는 정룡이를 업어다까지주며 또 핀잔을준다.

노는 뒤ㅅ집 젊은이가 마텃다. 지영호는 배ㅅ머리에 서서 긴 장ㅅ대를쥐고 배가 집집의담에서 떨어지지 안케 하려고 애를쓴다.

배안에서는 경히 혼자 술집당 을 다니던 길 우를 배로가는 많이 이상하고 기쁘다.

「쇠돌이집야 쇠돌이집」

경히는 또 소리친다. 경히의 집이라고 재재거린다. 순구라집을 하며 뉘집마다 쇠돌네를 유심히 본다. 마루우에 노피 치달린 장괴란한기도 오래인지 텅 비엇다. 놓은 더욱 집안이 쓸쓸해 보인다.

「얼른들 나오지 뭣해!」

뉘집에선지 피란을 재촉하는 고함이 들려온다.

쇠돌네를 지나 배는 골목에서 쓸리어 탁류에 복갠다. 골목안에서 깨진 바가지쪽이 급히 내려오다 배에 부디치면하더니 휘 여프로 쓸린다. 배안의 사람들은 힘찬 탁류의 물결을 둘러보고 말들이 딱 끄친다. 경히마저 눈이 둥그래저 할아버지에게서 눈이 떠러지지 못한다.

끌목안의 탁류를 안은채 배ㅅ머리는 휘 방향을 돌린다. 바로 여픈 거센 탁류가 지내간다. 지영호는 바쁘게 장ㅅ대를 집어 여프로 돌린다. 장ㅅ대는 물속에 다들어가고 손잡이만 남는다. 그는 어프러저 장ㅅ대끄를 어깨에 대고 힘껏 배ㅅ머리를 버티며

「안으로 물러 물러!」

하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본다. 이마에는 피ㅅ대가 불끈 불끈 솟아 것다.

뒤칠이는 노를 가누지 못한다. 우로솟는 노를 감우기에만도 오히려 몸의중심을 일흘번한다. 두사람의 허둥대는 꼴을 보고 배안의 사람들은 더욱 물안해간다. 배ㅅ머리는 거센탁류속으로 밀려나간다. 노는 점점 무거워진다. 탁류는 노의 움지김을 방해하는것이다. 점룡이는 멍하니 엉덩이를 들먹들먹하나 일어나지는 안코고개를 더욱 숙인다.

지영호는장ㅅ대를 물속에서 빼어 배ㅅ머리로 좃더 나가 급히 물속에 처넌다. 또 끄치지자 힘것 아프로 당기고 또 어프러 장ㅅ대끄레 어깨를대고 밀린다! 미는듯하다 몸채, 배를 여프로 밀친다. 배는 조곰 아프로 그대로 밀린다. 배는 제법 물결을 헤치고 밀린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장ㅅ대를 뻰다. 다시물속에 잽싸게 박는다. 장대끄른 배ㅅ전우에서 머물른다. 뒤에서 노를 젓는 바람에 배는 쑥거센 물결에서 버서난다. 배는물몽을 건넌다.

文章 二月號

一週年記念特輯 價六十錢 送料二錢

나의 文學十年記 兪鎭午、朴泰遠、李無影、李箕永、蔡萬植、李孝石、韓雪野、安懷南、李泰俊、林和、金起林

小說 亂啼鳥 …… 春園

小說 洞口 …… 金東里

長篇 愛經(第二回) …… 朴泰遠

戲曲 燈盞불 …… 朴英鎬

小說 微笑(海外作品) …… 丁奎昶

科學으로서의 詩學 …… 金起林

文學의 理論과 實際(連載) …… 朴英熙

文學上의 諸問題(文藝時評) …… 安含光

作家志望人을爲하야 …… 李泰俊

나의小說修業 …… 桂鎔默

時調 古書 …… 가람

詩 木具 …… 白石

詩 連峰霽雪 …… 金鍾漢

詩 詩人의倫理 …… 金珖燮

詩 山 …… 林學洙

詩 鳳凰愁(推薦) …… 趙芝薰

나의 광세 …… 玄民　金剛火 …… 朴魯甲

南行記 …… 蔡萬植　외두亂 …… 李秉珏

完板 …… 尹圭涉　失眠閑話 …… 金素雲

風土와音樂 …… 金管　園芸漫筆 …… 柳光烈

愁誰語(平壤) …… 鄭芝溶

新連載 仁顯王后傳(朝鮮語古典) …… 李秉岐

連載 渡江錄(朝鮮語古典選) …… 李允宰

(特別附錄) 血의淚(全載) 李人稙

京城鍾路韓靑빌딩三層 振替京城二五〇七〇番 電話光化門一六二七番 文章社

藥으로 滋味나는 돈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 自由로 製造

◇立身成功의門

(入學案內 無代進呈)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日本通信製藥學校

商標 千

고추가루

釜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園一一八二番 一三八二番 振替釜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눈보래질하는요새에 감기와모든병에 걸니지않도록…

口中殺菌劑

衛生口錠 가오―루

입으로부터들어오는 병균을방어함

요새에는모든병이류행되기쉬운시절이며 더구나萬病의근원이되는감기에 걸니기쉬운시기인즉 몸이약하신분은 무론할것도없거니와 身體가健康하신분이라도 내일의保健을도모키위하여 身體力을振興식히고 입으로부터침입되는 모든병을방어하여주는 여러분의健康保護神인「가오―루」를口中에二三粒식봉어부시면 피로가 곧회복되어 상쾌한기분과함께 전신에生氣가늠々해질뿐만아니라 모든병을 미전에예방할수가있게되는것입니다

날로더부러 生存競爭이尤甚하여가는 오늘날에있어서는 生活戰線의激務에분주하신분이나 熱心工夫에골무하시는 學窓生活의여러분께서는 일에對한실증과 피로를심이늣기실줄밋아오니 이런한때잊지마시고「가오―루」를 두세알식 입안에봉어부시면 전신에활기가늠해짐을따라 머리가 끔산뜻해지고 피로가一掃되어 일에能率이나게됩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잡수신후 출입하실때나 사람많이모힌곳에계실때등에 복용하시면 心身의各機能의活動力이왕성해지며 늘기분좋게지내실수있게됩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携帶用門鴻瓶入	(廿五錢)	三百粒
懐中用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匂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花籠形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가오―루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전도각지의약점 판매점에있음

006360

經濟

戰時下增米計畫 耕種法改善에置重

⑤ 朴鍾秀

朝鮮의 產米增殖을 山脈으로 譬喩하면 第一次增殖計畫은 供給以來로 맛잇하게 五르는 山脈에 우뚝한 봉우리를 이뤗것이오 이봉우리가 當時 그勢를 아주어가지고 고개를 수그리다가 다시 新計畫으로써 頂角을 들되 그 風貌를 널게잡고 제법大山의 周圍를 가추게된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시고개를 수그리고말엇다.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때는 即帝國의 食糧問題가 尋常치 안흔때이며 고개를숙이기시작하는때는 帝國의食糧이 豐足 或은豐足以上으로 남는때이다. 그때의 特徵은 原因일뿐이오 根本的으로 옹지기며 產米增殖의 消長을 支配하는것은 帝國食糧의 足不足의 如何에따르는것이다.

또 이足不足도 多分으로 天惠의 支配를 밧지안흘수 업서서 大正八年의 米騷動을 ……

米한 凶作은 產米增殖을 花形으로 만들고 昭和五年의 偶然한豐作이 產米增殖의 山勢를 꺽거놓고말엇다.

이와가튼 根本的事情을 充分히 認識한다면 東亞新秩序의 建設이 날로進捗되고 日滿支의經濟關係가 密接해짐에 따라서 米穀의 消費量이 急激하게增大될것이매 ……

어로써 米穀輸入的自給自足으로 大凶年에 大百八十萬石의 增產을 計畫하고 昭和十五年度인 今年度부터 一個七千萬圓의 巨額을 들여서 大大的으로 實行하게되엿다.

이제그內容을 엿보면 方法으로서는 耕種法의 改善으로 約五百十一萬石의 增產을 實現하고 土地改良事業으로써 一百六十九萬石의 增產을 꾀하야 合計 六百八十萬石의 增收를 ……

[illegible]

大凶作翌年米供給 意外裕足한形便

朝鮮內供給力千三百萬石

十四年朝鮮米實收高는 二十三日總督府로부터 發表 되엇는데 一千四百三十五萬五千七百九十三石인바 이數字를基礎로 簡單한 供給力을따저보면 아래와갓다

即 米實收高에 十四年度의持越米二十九萬二千三百二十二石을 加하면 合計一千四百六十四萬八千百十五石이되는데 이中에서移輸出될것은 總督府當局이內地側과 折衝한結果 百五十萬石으로決定되엇스므로 이것을빼면 一千三百十四萬八千百十五石이되나 設令輸移入米를 업다치고서도 이만한數量은 朝鮮서消費할수잇는 計算이되니 十四米年度의消費量 一千七百六十四萬六千百卅八石에는 어림없지만 節米雜穀混食이 徹底히勵行되면 大凶作年의 翌年의 米穀으로서는 도리어 그리悲觀할것이업고 도리어相當한數量을 持越할수도잇슬것이다

綿布、棉花軟化

外電의 暴落과 環境不良으로 漸落되는 大阪綿布淸算市勢는 當限이 마침내 四圓臺를 割下하엿다 二十三日前場大引價當限은三圓九十三錢으로 前日에比하면九錢五厘低 先限은四圓七十七錢으로 八錢五厘의 各其暴落이며 棉花市勢도 前場大引價先限은六十三圓九十五錢으로 七十錢低로軟勢이엇다

綿布類絕品狀態 需給極度窘塞

新規格品의公定價尙未發表로 紡績會社倉庫에積載

總督府에서는 朝鮮內에서生產되는 綿布類十七封度는 六十種類에達하고 規格에잇서서 各社가 모두區區하므로 其種類及規格의統一이 必要하게되어 十二月上旬 各社에向하여 種類는卅種類에限定시키는同時에 規格의統一을圖하고 同時에綿絲의需給이 窘塞함에鑑하여 品質도十七封度로부터 十六封度로低下하여 一月一日부터 生產하도록하라는 指示가잇섯스므로 各紡績會社에서는 總督府의指示에 追從하여 生產하고잇는데 一方公定價格의發表가 今月下旬에이르도록 아직決定되지못햇스므로 市中에는 一梱도出廻되지안허 市中은新正을압두고 購買力이旺盛한때이라 米穀以上의飢饉狀態를 뭇하고잇서 需要側은 公定價格의發表가 速하기를바라고잇다

六百圓呼價

品不足으로闇取引盛行

別項과가치 一月一日부터 新規格에依한 十六封度綿布類는目下各紡績會社에서 生產하고잇는데 一方總督府商工課로부터의公定價格發表遲延으로 紡績會社는 價格의標準이업서 一梱도販賣할수업게되어 市中의綿布類飢饉은 매우深刻한狀態에잇다 其反面購買力이 漸次로 旺盛해지는때이라 一部의惡德商人은 十七封度는 다시는生產되지못하는것이라고하여 多少의수효를가지고 闇取引이盛行되어 一梱三百八圓八十錢의公定價를無視하고 近六百圓의價格으로써 販賣하고잇는것은新規格의公定價가 遲延된데依한 一月分의 出廻品이 不足된때문이라고하여 總督府當局의緊急措置를 要望하고잇다

棉化輸入資金 增額承認

財務局方針決定

歐洲大戰勃發以來 綿絲布의第三國向 輸出이 激增된데鑑하여 朝鮮紡績同業會에서는 링크制에依한 棉花의 輸入資金의增額을 總督府에 申請하엿스므로 財務局에서는 大藏省과 協議한結果 一萬괴를 五十萬圓程度의 增額을 ……

「스·파」人絹의 協定價格申請

朝鮮「스·파」人絹同盟會及 同聯合會에서는 『스·파』人絹織物民需品三百六十餘種의 協定價格에對하여 當局에 여러가지로 協議中이던바 이지음 具體案을 어덧스므로 二十二日 午後二時半부터 同盟會幹事 月崎, 中瀨同聯合會理事長, 加藤의四氏가各各總督府 京畿道等의 當局을訪問하고 右協定價格認定을 申請하엿다 그리고利潤率에對하여는 同盟會의分은 最高九分五厘、最低六分이고 聯合會의分은 最高一割六分 最低八分이다

南鮮水電發起人會

東拓과 朝鮮電力의合作인 南鮮水力電氣株式會社(資本金二千萬圓四分之一拂込)는 其間創立準備를 進行시키고잇던바 來二十五日南鮮合同電氣會社內에서 發起人會를열고 定款株式拂込期日總會期日等을 附議決定할터인데 創立總會는 二月下旬或은 三月上旬으로될 豫定이다

○高周波總會 日本高周波에서는 今般同社의資本金一千萬圓을 五千萬圓으로增資하기로되어 오는二月八日午前十時부터 京城本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右增資에伴한定款變更의件 其他를附議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增資의時期等에對해서는 重役에一任하기로될모양인데 大體三二月下旬頃右增資株의一部를 公募

全朝鮮無盡統制

全朝鮮一社로進展

中央無盡에서全北無盡合併決定

朝鮮中央無盡에서는 資本金百五十萬圓의 全北無盡을合併하기로決定하고 目下兩當局者間에準備를하고잇는데 右는總督府의無盡會社統制方針의轉換을 具體化하는것으로서 注目된다

即, 總督府에서는 無盡統制第一步로서 一道一社의 方針으로 나가고잇는데 過般의綿德의合併決定으로 全部完成된바 다시統制의第二段階로서 全朝鮮一社의理想主義로轉換하여 今回의全北無盡을 中央無盡에서合併하는것은 統制會社에依한 統制會社의 合併인만큼 總督府의 右方針에順應한것으로 보이어 今後 各道의 統制會社도 續續 買收合併을 斷行할것으로 보인다 또 中央無盡의 統制下에잇는 道는 現在全南, 忠南北, 黃海의四道에達하여 今回의全北으로 五道로되는데 中央無盡이 朝鮮內에서 約五分의三의勢力을占하게되엇다

鰮景氣高調 未曾有의記錄

漁獲高五千七百萬圓

總督府殖產局 調査에依한 十四年中의 鰮漁獲高는 大體로集計를 終了하엿는바 總漁獲高는 百二十一萬屯에 達하고 金額으로는 五千七百萬圓에 達하야 金額에잇서서는 未曾有의 好況記錄을 示하엿다 即 從來의 最高記錄은 昭和十二年의 百三十八萬屯으로 二千三百萬圓인데 그金額은 三千四百萬圓에達한데 比하여 金額에 잇서서는 七割의 增收를 示하고 十年前의 二十七萬屯三百七十八萬圓에 比하면 實로數量에 잇서서五倍, 金額에 잇서서 十五倍라는 激增을 示하엿다

端川燐礦開發 組合結成

會社組織은六月頃?

端川燐礦石開發에 對해서는 이지음 大日本燐礦會社調査課長廣井愼平氏가 入京하여 總督府當局과 協議하고잇서 會社組織하는모양가치보이더니 여러가지 事情으로因하여 會社를組織하는 前提手段으로 먼저 朝窒、日產化學、大日本燐礦外內鮮有力關係의二十餘社로써 朝鮮燐灰石開發組合을 二月上旬中에 組織하기로 決定하고 同組合에서는 事務에着手하기로 所要設備하고 同組合에서의 모든根本的調査를 하기로되엇스며 會社組織은 六月頃으로될모양이다

세멘트配給增加

第一四半期總量二十四萬屯

殖產局에서는 二十二日 十五年第一四半期(十二月―二月)의세멘트配給配定을 決定하고 關係官署에 通知를發하엿다 그리고 一般需要者에의 購入券은 二十三日中에 發給하기로 되엇는데 今回의 配定總量은 約二十四萬屯으로 前年同期에比하여 約十四萬屯의 供給增加이고 冬期不需要期의 供給高로선 稀有의增加이다 如斯히 不需要期에도不拘코 殖產局에서 增配를斷行한것은 需要期의 需給關係를 極力緩和하고 生產力擴充事業에 萬全을期할 意圖에서 나온것이다 即冬期不需要期는 例年生產高가 激減되는데 今年은 冬期中도能力이 許하는限의 生產을期하여 大口需要에는 先取를勵行시키고 需要最盛期에잇서서의 供給不足을 招來하는것가튼事態를 未然에防止하려는것이다 또配定內容은 時局關係方面에優先的으로 配定하고 一般民需는極力抑制할方針이다

燐寸公定價引上?

【東京電話同盟】中央物價委員會雜品物價專門委員會의 燐寸部會는 二十二日午前十時부터 東京商工會議所에서 開催하고 燐寸供給不足과 關聯하여 最高販賣價格의 改訂에對해서 協議한바 同部會에서 公定價格引上이 決定되면 오는二十四日開催하는中央物價委員會總會에附議하여 答申하는形式으로 速히引上을 實施할터이다 燐寸의 最高販賣價格은 昭和十三年十一月決定되어 一褒(十個入)二十一錢 德用大二十九錢、同小十五錢으로되어잇는데 其後軸木의値上 工賃의昂騰으로 昨秋以來燐寸製造業者는 公定價格의 相當大幅引上을 當局에陳情하고 잇섯다 이에對하여 商工當局에서는 코스트의昇騰에 愼重한 態度를 持하고 生產價格引上만에끄치지안코 增產을讓하여야한다는 立場에서 業者의引上陳情을抑壓하고잇섯스나 燐寸飢饉의 現狀에鑑하여 昨今에는 價格의 引上도不得已하다는 意向을가지고잇는모양으로 引上하는境遇는 同時에 輸出入品臨時措置法에基하여 增產命令을發할터이다

鮮銀券도激增

收縮은期待難의形勢

日銀券도急調膨脹

年初以來의兌換券收縮은 十九日發行高를 最低로 月末關係로일어서 다시膨脹으로 轉하여 限外發行도恒常化되엇다 即二十三日에 續越된 發行高는 二十九億五千六百四十九萬七千圓으로서 前日에比하면 實로四千六百九十四萬八千圓의膨脹이며 限外發行도 二億五千五百二十一萬圓으로 四千六百九十四萬八千圓의 激增이다

鮮銀券發行高도 二十三日續越高로보면 다시膨脹으로 轉하여 四億二千二百六十七萬圓으로 前日보다五百八十六萬圓이나 增發되엇다 右는 普給關係의 國庫支拂이主因이되는것이며 各金融機關의貸出은 依然히多少行해지고잇스므로 此際中心으로 今後急激한 收縮은 期待할수 업다고 觀測되어잇다 따라서 限外發行은 ……

鮮銀券發行高週報 (自一月十四日至一月二十日)

	一月二十一日	一月四日
發行高	[illegible]	[illegible]
正貨	[illegible]	[illegible]
限外	[illegible]	[illegible]

(單位千圓)

一、銀行券發行平均高 一九、〇三〇、一〇八
正貨準備發行平均高 一三四、五二一、一二四
其中制限外發行高 四二三、五四一、三四二
一、保證準備發行平均高 一七九、〇三〇、一〇八
二、銀行券發行高 四〇、八〇六、八六五

財界秘話

於音과換簡

사금지를쪼개가지고 決濟하던時代를지나서 百年前에 於音과 換簡이생겻다. 於音은 지금의約束手形이오 換簡은 爲替手形으로알면된다

> 於音
> 錢文參千兩出給事
> 丙子二月九日 蓮池洞某 (手決)

이것이於音인데 錢文三千兩出給事라고쓴데를 한가운데서 두쪽으로베어서 한쪽은 支拂人朴某가갓고 한쪽은 受取人金某가갓는다. 당새에 하번씩把守인데 把守날으로決濟하는날이다

> 換簡
> 京城梨峴某商店前
> 當五錢文五千兩到京限五日出給事
> 六郞某客主留金某(手決)

이것이換簡이다. 金某가시골에서 물건을사고 세를 換簡 한다 …… 於音과 換簡에도지금의 手形가치 裏書해가지고 流通되엇다. 지금世上이 開明해저서 小切手、約手、爲手로 가장簡便해진것이다 …… 便히循環되는것가치 생각할지모르나 호랑이담배먹을때도 於音制度가잇서서 지금보다 못지안케 經濟活動에 不渡가난다 …… (寫眞은 朴承稷商店의記者에게써준 於音과 換簡의模型)

古手帖에서 又靑生

一事一言

▼年初부터 實施된 新規格統制 …… 公定價格 ……

▼十四年朝鮮米實收高는 一千四百三十五萬五千七百九十三石! 前年實收보다 九百七十八萬三千八十一石의 減收

▼百五十萬石輸移出除하고 二十九萬餘石의 持越米를 加算하면 朝鮮內供給力은 一千三百萬石 ……

▼兌換券收縮은 暫時뿐 ……

▼…세멘트配給增加 生產力擴充에 支障이 업게하기爲한것이니 民需는 一層自制할일.

今日의市勢 二十三日

株式 反高後에 仲惱

前場反高 今朝는東新四高인百三十九圓九 鐘新二高인百七十四圓八 鐘紡八高인百七十四圓八 安取二高인二十圓四에 少堅寄付된後 東新은百四十圓關門을 回復하엿스나 結局東新百四十圓八 鐘新百七十四圓八 鐘紡百七十五圓一 安取二十圓四에大引

後場頭重 後場은 各二高인 東新百四十一圓丁 滿新百十五圓丁에 寄付後 頭重商狀을 呈하엿다

株……汪, 王, 梁의青島會談을好感코 東新은 百四十圓關門을恢復하엿스나 新政權은 언제樹立될는지 分明치는안호나 近迫된것만은 事實이니 低價를追擊買하기로 變態되는모양▲그러나 電力不足은 자못深刻한것이잇서서 諸株는 整理中에 잇스니 淸算의遲步的活潑은 至難期▲議會開院의 政策如何를 注視하고 待機中

安取廿圓突破

安取는其間二十圓上昇을거듭하여 드디어二十圓臺를 突破하고 今朝는 二十圓五의高價를 示하엿는데 安取는今年三月末로써營業期限이滿了되고 其後는 滿取에 合併된다하여 株式比率은 滿取十對安取六을唱하여 人氣가 集中되는터이나 果然얼마지 ……

安取滿取合倂進捗

安東取引所에서는 二十三日緊急重役會를開催하고 同所와滿取와의 合併에對하여 協議할터인데 安取는今年三月末에 營業期限이 滿了되는것을 機會로滿洲國의 取引所統制方針에 順應하려는것이므로 安取에서 一對一의 對等合併을主張하고잇는 모양이어서 安取株는二十圓四、五十錢高 부르고잇다

東拓一分增配說

東拓에서는 第四十二期十四年度下半期定時株主總會를 二十三日 東京本社에서開催하는데 配當은 七分据置 或은一分增配說이잇스나 아직未定이다

現物續低

現物은電力問題를契機로하여 整理期에들어와 利喰物이續出되고잇는데 諸株一齊히一ㅣ二圓가량의 崩落을 演하고 新鮮物도 一般으로 凡調를 示하엿다

今日現株市勢 (正午)

[illegible]

延取 靜閑 同調推移

前場無賣買 今朝도玄米正租 모두賣買가업서 全然不成에끄치엇다.

後場一本 後場은 玄米二限一月限에 四十二圓二十八錢一本이섯슬뿐이다

東京國債

▲一回四分 一〇三、一〇 ▲二回四分 一〇三、一〇 ▲十九年物 一〇三、四五 米貨五分三九六

青島會談好感

日米通商은 無條約時代를 出現하게되고 …… (판독 곤란)

今日財界 廿三日

[illegible]

東城物價 廿三日

[illegible]

銀行券 廿三日 / 金利手形交換 / 鯡油粕·麥粉 / 對外爲替 / 株式 / 棉花 / 綿布 / 生絲 / 海外經濟 廿三日

[illegible]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 電話本局 ……

三國志 【77】

韓龍雲 譯 熊超 畫

曹操의 ……(六)

장비가 현덕을 보내놓고 여러가지 다른일은 진등에게 맥기어 다시리게하고 군사에관한 큰일만 자기가 참작하야 하더니 하루는 잔치를 베풀고 여러사람을 청하야 자리를 정한뒤에 장비가 말하되 『우리 형님이 가실때에 나에게 분부하야 술을 적게먹으라 하엿슴은 일에 낭패할까 염려한것이나 여러분은 오날만 마음대로 취하고 내일부터는 각각 술을 경계하고 나를도아 성을 지킬지니 오늘은 취토록 마시게하리라』 말을 마치고 몸을이르켜 여러사람과 술잔을 잡을새 술이 조표에게 이르매 조표가 말하되 『나는 하늘로맹서한바를 조처서 술을먹지 안노라』 장비가 말하되 『싸우는 놈으로 어찌 술을먹지 안느뇨 내가 너에게 한잔을 먹이리라』 조표가 두려하여 한잔을 마시니 장비가 여러사람에게 모두 권하고 자기는 큰잔에 따라서 연하여 수십배를 마시니 크게 취하엿다. 장비가 또 몸을 이르켜 여러사람에게 술을 권할새 술이 조표에게 이르매 조표가 『나는 실로 술을먹지 못하노라』 하니 장비가 말하되 『네가 아까곳 먹엇는데 지금에는 어찌 먹지못한다 하느뇨』 두세번 권하야도 먹지아니하는지라 장비가 취정으로말하되 『네가 장수의 령을 거스리니 마땅히 몸기 일백을 때리리라』 하고 군사를 명하여 잡아내라한대 진등이 말하되 『현덕공이 떠날때에 무엇이라 분부하더뇨』 장비가 『너는 문관이니 문관의일이나 아른체하고 나의일은 관게하지 마라』 조표가 할수업서서 고하되 『익덕공은 나의 사위의낫을 보아서 나를 용서하소서』 장비가 말하되 『너의 사위가 누구뇨』 『여포가 나의 사위라』 장비가 노하여 『내가 본래 너를 때리지 아니하랴 하엿더니 네가 여포를밋고 나를 위협하니 내가 너를 때리리라 너를 때리는 것은 여포를 때리는것이라』 장비가 여러사람의 만류함을 듯지아니하고 조표를 때리어 오십개에 이르는지라 여러사람이 힘써 만류하매 바야흐로 그치고 자리를 허헛다 조표가 도라가서 장비를 기

망하야 밤에 사람을 소패에 보내어 편지를 여포에게 주어 장비의 무례한 일을 말하고 또 이르되 『현덕이 이미 회남에갓스니 오늘밤에 장비의 취함을 타서 군사를 이끌고 엄습하여 기회를 일치말라』 …… 『소패는 원래 오래 잇슬땅이 아니오 이제 서주에 기회가 잇스니 이때를 일코 취하지 아니하면 뒤에 뉘우처도 엇지 못하리라』 여포가 그말을 조처서 곳갑옷을입고 말께올라 오백기를거느리고 먼저 행하고 진궁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려 따르게하고 또 고순으로 하여금 뒤에오게 하엿다 소패는 서주에서 사십오리박게 아니되는 곳이니 여포가 겨우 사경이라 달빛이 밝앗스나 성위에서는 아모것도 모르고 잇섯다 여포가 성문아페 이르러 말하되 『유현덕에 비밀한일로 사람을 보내어 이르럿다』 하니 성문을 치키는 군사가 마침 조표의 군사라 조표에게 고한대 조표가 성에올나 보고 군사로하여금 성문을여니 여포가 한소리 암호를하자 군사가 일제히 드리거며 고함소리가크게 이러낫다 장비는 크게취하여 누엇더니 좌우가 급히 흔드러 깨우고 여포가 성문을 쇠겨서 열고 드러와 짓치는말을 고하니 장비가 크게노하여 황망히 갑옷을 입고 장팔사모를 들고 겨우문에나서서 말을탈때에 여포의군마가 이르러 정히 서로만나니 장비는 술이 오히려 다깨지아니한지라 힘써 싸우지못하고 여포는 본래 장비의 용맹을 아는지라 또한 핍박하지못하더니 …… 하야 동문으로 나가고 장비를 보호 …… 권속은 도라볼 여가가업섯다 조표가 장비가 취한중에 다만 십수기를 이끌고 나가는것을 보고 백여인을 이끌고 쪼처가니 장비가 조표를보고 크게노하여 말을채처 …… 삼합에 조표가 패하여 다라나는지라 장비가 쪼처서 하수가에 이르러 한창으로 정히 조표의 등을 찔러 말과함께 하수가운데에 죽게하엿다 장비가 성밖게서 군사를불러 성에 나오는 자는 다 장비를따라 회남으로 갓다 여포가 성에 들어가 백성을 위로하고 군사 일백인으로 하여금 현덕의집을 파수하여서 다른사람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엿다